광주시장 "공공기관 혁신 멀었다" 채찍질

확대간부회의서 "의지 부족, 구태의연" 강조

'수당 비리' 등 망신에 공개 비판…연대책임도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공기업들이 오히려 시민들께 걱정만 끼치고 있어 존재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2018년 9월3일, 광주시청 대회의실. 민선 7기 첫 공직자 혁신교육에 강사로 나서 이용섭 시장이 공기업 인사 부조리와 비리, 무사 안일주의를 질타하며 던진 말이다.

2005년 청와대 혁신수석에 기용된 후 "혁신없이는 생존할 수 없다. 갈등, 장애, 연고와 청탁을 딛고 혁신에 전념하는 이가 대우받는 공직사회가 중요하다"던 일성과 일맥상통한다.

혁신은 소통, 청렴과 더불어 민선 7기 광주시 3대 시정방침으로도 정했다.

그러나 임기반환점을 진즉 돌았지만, 공공기관 비리와 후진국형 운영, 안팎의 잡음은 끊이질 않았고, 최근엔 선거 당시 핵심 참모이자 관료출신이 맡고 있는 광주과학기술진흥원발(發) '수당 비리'로 전국적인 망신을 산 데 대한 '공개 경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장은 이날 "눈에 띈 성과를 낸 기관도 있고, 산하기관 통합채용시스템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 민선 7기 성과로 꼽히기도 하지만, 아직도 산하기관 전반적으로는 기대 이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크게 바뀌고 있는데 공공기관장이나 임직원들의 혁신 의지는 부족하고, 기존 관행대로 일을 처리하기 일쑤"라며 내실있는 혁신 워크숍을 주문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일 오전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1회 공직자 혁신교육에 강사로 나서 '광주 혁신,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 제공)

"광주시 본청 실·국의 관리·감독도 미흡하고 구태의연하다"며 연대책임론도 꺼내들었다. "산하 공기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시 본청 실·국도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누차 강조해온 지점과 맥을 같이한다.

한때 법정스님의 '버리고 떠나기'란 수필집을 인용해 "나뭇가지에 묵은 잎이 달린 채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있다면 새 잎은 돋아나지 못할 것이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지혜로운 삶의 선택"이라고 밝힌 이 시장. '혁신 배달부' '혁신 전도사'로 통하는 그가 임기 하반기 공공기관을 어떻게 다잡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동취재본부

전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모의단속

도내 11만 6632대 대상…무인카메라 활용 상황 점검

전남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대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모의 단속을 실시한다.

현재 전남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3만 1천 661대로, 단속 제외차량(장애인차, 국가유공자, 매연저감장치 부착차량) 1만 5천 29대를 제외한 11만 6천 632대가 단속대상이다.

이번 모의단속은 올해 10월 말까지 전국 17개 시·도에 무인단속 카메라 등 자동차 운행제한 시스템이 구축 완료됨에 따라, 기관별 준비상황 및 통합운영 협조체계를 점검키 위해 동시 시행된다.

전남은 도내 36개 지점에 설치된 52대의 무인카메라를 활용해 운행상황을 점검하고, 저공해 미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주에게 휴대전화 문자로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지원사업'을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은 내년 상반기까지 도내에 카메라 50대를 추가 설치, 홍보기간 및 계도기간을 가진 후 내년 하반기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박현식 전라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노후 경유차는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 및 조기폐차 지원사업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대상인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과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차량이 등록된 시·군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군 환경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실시될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철도망 등 주요기반시설 확충·교통약자 이용편의 확대

전라선 고속철도 · 장애인 이동편의시설 부분 집중 검토

전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임종기 의원(순천2,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열린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라선 고속철도 국가계획 반영여부와 교통약자를 위한 이용편의 증진 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

임종기 의원은 "사람으로 치면 도로망은 대동맥에 해당한다"면서 익산~여수 전라선 고속철도의 차량 배차 등 운행 추진 현황이 미진한 것을 지적하고, "전라남도에 할당되는 배차차량 대수에 있어 총량 개념이 아니라 각론 개념으로 몇 대가 투입될지 생각하고 접근해야 한다"며 "사업이 다 끝난 후 달라고 배치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당연히 먼저 배치 될 수 있도록 논거를 마련하여 사전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무안공항의 이름을 전남도의 상징인 김대중 공항을 변경하는 것을 제안하면서, "국토부의 입장이 1군데를 해주면 다른 곳도 다해줘야 한다는 논리라면, 차라리 공항 변경 건을 전부다 모아놓고 공론화 시켜서 할 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좋은 정책인 100원 택시 사업이 더 확대되기 위해서 유기적인 활용방안을 검토해 줄 것과 제도 편입보다 생활편익에 맞추어 실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면서, "장애인 콜택시 기사님들의 식사장소까지의 이동시간이 있다보니 장애인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장애인콜택시 취지에 맞게 불편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식사시간 및 운행시간 간격조정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동구, 불법투기 멈췄다…'향기 나는 정원' 큰 호응

광주 동구가 최근 관내 상습 쓰레기 불법투기지역 10개소에 '향기 나는 주민참여정원'을 조성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동구는 올해 '쓰레기 없는 마을, 깨끗한 행복 동구' 만들기를 위해 매년 5% 쓰레기 줄이기를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각종 청소행정혁신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을 돕기 위해 공공형 일자리 사업인 '우리동네 청결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원룸가 골목, 학교골목, 남광주시장 주변,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주변, 관광객 방문이 많은 동명동 카페거리 등 상습 쓰레기불법투기지역 10개소를 선정해 주민참여정원을 조성했다.

서구, 주택가 노후 보안등 LED로 교체 "밝아졌어요"

광주 서구가 학교 및 주택가 밀집지역의 노후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이번 LED 교체사업은 특별교부세 및 시비 8억원을 투입해 금년말까지 화정동 일원 874등, 양동 일원 252등, 농성2동 및 상무2동 일원 535여등을 고효율 조명인 LED로 교체해 주민들이 늦은 밤에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길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구 관내 보안등은 6,963등으로 지금까지 5,320등(교체율 76%)을 LED로 교체했으며, 전년대비 전기요금 약 4천여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내년에도 쌍촌동 주변 및 농성1동 치평동 등 취약지 600여등을 우선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남구,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지도·점검

광주 남구는 최근 한 대형병원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지역감염의 확산세가 우려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남구는 17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실시됨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약국을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에 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의료기관 329곳과 약국 108곳이다.

이번 점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점검 사항은 마스크 착용을 비롯해 외부인 출입제한 및 출입자 명부 작성, 건물 내외부 방역 소독 등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이다. 마스크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즉각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1차 지도하고, 이마저 불이행할 경우에는 위반 당사자에게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관리·운영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할 때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북구,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전국 최우수기관'

광주 북구가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한 성과를 전국적으로 인정받았다. 북구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제12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광주시에서 유일하게 보건복지부장관 표창과 함께 포상금 1300여만 원을 받았으며, 이번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는 전국 22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한 지자체를 발굴해 사례를 전국에 확산하고자 마련됐으며 북구는 2년 연속으로 최우수상을 받았다.

광산구, 첨단1동 지사협, 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

지난 16일 광산구 첨단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한수열)가 월봉서원에서 위원 역량 강화와 화합을 위해 '지사협 제대로 알기' 강연, 복지공감 토론, 철학자의 길 탐방 등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진행했다. 한수열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해온 위원들에게 작은 위안을 주기 위해 마련한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라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 세무기장·조정 ■ 법인설립
■ 양도소득세 ■ 상속증여세
박 우 열 세무회계사무소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11번길 4 2층
Tel 062)710-8700 Fax 062)710-5400

분 실 공 고

무안 승원팰리체아파트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하였기에 이에 공고합니다.

분실명 : 무안 승원팰리체아파트 101동 1104호 임대차계약서

계약자 : 강성선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2020느단 532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유재망 (560704-1650525)
최 후 주 소 : 여수시 덕양로 157, 314동 502호(화장동, 주공아파트)

위 망 유재망 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20년 11월 18일

공 고 인 : 유민호, 유성애
주 소 : 서울 도봉구 노해로 201-17, 203호(쌍문동, 거성파크빌)
한정승인수리일 : 2020년 11월 12일
공 고 기 간 : 2020. 11. 18 ~ 2021. 1. 18